



에이즈 없는 건강한 월드컵을

올해 5월말에 우리 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된다.
 개최지 선정 때부터 온국민의 관심과 열기가 쏠려 이제 절정에 달하고 있는 세계적인 축제.
 이 축제에 에이즈가 불청객이 된다면 나라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UNAIDS(유엔에이즈기구)는 브라질 최고의 공격수 호나우도를 "에이즈예방을 위한 세계청년운동캠페인"의 특별대사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도 잡지나 슬라이드 등 교육자료에 그의 사진을 게재했던 기억이 난다.

지난해 7월 개최되었던 FIFA 집행위원회에서는 독일이 남아공을 누르고 2006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됐다.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의 첫 월드컵"이란 기치를 걸고 분위기를 주도해 갔으며 준비에도 철저을 기하여 월드컵 경기장도 9개나 완성하는 노력을 보여줬으나 결국 에이즈위험 국가라는 사실이 투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렇다면 월드컵과 에이즈는 어떤 관계이기에 호나우도가 에이즈예방 특사가 되어서 협회의 잡지에도 그의 얼굴이 실리고, 남아공은 전문가들의 우세예상에도 불구하고 2006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에서 독일에 12대 11로 밀렸을까?



>> 많은 외국인의 입국으로 매춘과 성행위 위험 높아

한국관광공사는 2001년 한해동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515만명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 대회기간중 한국을 방문할 외국인 관광객은 평소보다 훨씬 늘 것이라고 한다.

이들 관광객과 함께 에이즈 감염이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나라의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들도 들림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고 이들과의 성접촉을 통해서 국내 감염자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를 더듬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 세계 각국의 매춘단이 시드니까지 원정을 와서 매춘이 성행했던 일은 이미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사실이다. 국내의 예를 보자. 한 윤락업소 포주의 말을 인용하면 "1988년 서울올림픽 때도 외국인 손님이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도 비슷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청량리 및 미아리 일대의 윤락가는 이미 일본에도 꽤 알려진 명소로 일본 잡지에도 빈번히 게재되고 있으며 여행사에서 관광코스도 만들어 적지 않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 음복습수 조주의 일을 원상회한 2000년 서울올림픽 때도 카랑이 수인이 상이한 것같은 것 때문에 카랑이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산다 여정에서 관할로소인 성을한 나인 양은 상복습 관할관하는 이종하다 이라고
산다 러시아와 동남아 백은 여성들의 원복도 들어날 전당이다

이미 월드컵 조 추첨 이후부터 이곳의 외국인 고객 수
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동남아의
매춘여성들의 입국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 입국한
매춘여성들과 더불어 월드컵특수 기간중에 원정 올 매춘
여성들도 커다란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일반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에는 이미 150만
명이 넘는 에이즈 감염자가 있으며 많은 수의 중국인 응
원단이 월드컵 기간중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 유
럽의 악명높은 홀리건은 어떨까? 태국 등 동남아와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에서 오는 이들은 어떤가? 모두 에이즈
가 기승을 떨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국
내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들 역시 고위
험 집단으로 분류된다.

이들 대부분이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고독한 생
활을 하고 있으므로 월드컵 분위기에 휩쓸려서 위험 행
동을 할 요소가 많다. 월드컵 대회를 맞아 안락으로 여러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 세계 어느 곳이라도 하루 안에 전파 가능해

과학자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에이즈는 이미 1930년대 아
프리카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 이미 온몸
이 바짝 마르고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질병이 있었다고
한다.

다만 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고 대륙간 인구가동도
적어서 1980년대야 비로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현대
의학이 에이즈라는 질병을 발견했을 뿐이다. 아프리카에
서 아메리카로 에이즈 바이러스가 이동하는 데 50년이라
는 세월이 걸렸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에서 우리나라까
지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시간
이면 충분하다. 에이즈 감염자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세계 어느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들어
오는 24시간을 넘지 않는다. 국제화, 세계화의 조류속에
그만큼 경제, 정치, 문화의 교류가 활발해 섰고 인구가동
도 많아졌다.

월드컵이라는 전세계인의 축제를 우리나라에서 갖게
된 것은 커다란 경사임에 틀림없다. 요새 거리를 가다 보
면 "은 국민이 대표선수" 라는 월드컵 표어를 자주 본다.

이는 월드컵을 스포츠행사에 국한시키지 않고 문화적
으로서는 한국문화의 성장, 정치적으로는 한일관계 재정
립, 남북관계 개선, 경제적으로는 36만 명의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은 국민이 합심하여 월드컵이 가져
다주는 이점을 가지고 국력을 기르자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여기에 한가지 더 강조할 것은 어느 에이즈 환
동가의 말처럼 "2002년 월드컵이 문화월드컵, 경제월드
컵과 더불어 건강월드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
력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에이즈예방사업을 정부와 관
련단체들의 노력에만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에이즈는 전염병의 하나로 인간관계, 특히 성 관계를
매개로 전파되는 질병이다. 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
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본능중의 하나이고 개인의 유밀
한 사생활이고 보면 전파를 차단하기가 그렇게 쉽지 만
은 않다. 결국 개인의 건강은 개인이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상은 문화사업과장